

앱마켓 통합 이동 3사 “구글·애플, 한판 붙자”

‘애플 와치’ 나온다

다음달 美·中 1차 출시...한국은 제외

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의 차기 제품인 착용형 단말기 ‘애플 와치’가 다음달부터 미국과 중국 등에서 시판된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빠졌다.

시판을 앞두고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 이뤄질 제품의 매장 전시와 예약주문 접수는 4월10일 시작되며, 공식 시판일은 4월24일이다.

탑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임원들은 9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의 여바 부에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행사에서 발표됐던 대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애플 와치 스포츠 컬렉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애플 와치 컬렉션’, 18캐럿 금으로 만들어진 ‘애플 와치 이디션 컬렉션’ 등 3개 카테고리로 나온다. ‘애플 와치 스포츠 컬렉션’은 38mm 모델이 349 달러, 42mm 모델이 399 달러다. ‘애플 와치 컬렉션’은 시계 띠의 종류에 따라 38mm 모델은 549~1049 달러, 42mm 모델은 599~1099 달러다.



가장 비싼 ‘애플 와치 이디션 컬렉션’은 최저 가격이 1만 달러다. 이 제품은 전자제품이나 시계 시장이 아니라 고급 장신구·보석류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와치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약간 둥근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며, 오른쪽 옆면 중 상단에는 디지털 용두가, 하단에는 버튼이 달려 있다.

크기는 38mm와 42mm 두 종류다. 애플 와치는 아이폰과 연동해서 쓰이며, 이날 일만에 배포되기 시작한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 8.2가 와치용 앱을 지원한다.

버튼을 누른 후 애플 와치를 비접촉식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애플 페이가 작동한다. 충전은 자석이 붙은 충전기를 시계 뒷면에 갖다 대면 이것이 단자에 달라붙으면서 이뤄지게 돼 있다.

쿡 CEO는 이 제품의 배터리가 ‘전형적인’ 사용 방식을 가정하면 18시간 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T스토어·올레마켓·U+스토어 인프라 통합 고품질 콘텐츠 한곳에서 다운...시너지 기대

SK플래닛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앱마켓을 운영하는 3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대항하기 위해 앱스토어 인프라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동 3사는 스토어 동반성장을 위한 ‘원스토어 프로젝트’를 마련, T스토어(SKT)·올레마켓(KT)·U+스토어(LG유플러스)의 인프라를 통합한다.

이동 3사는 11일 공지되는 개발자센터 약관 변경에 대한 ‘원스토어 프로젝트’ 관련 설명 메일을 9일 오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3사는 4월 초 각사의 개발자센터를 통합개발자센터로 전환해 통신 3사 스토어의 앱과 게임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앱결제·상품조회·DRM 등 기반기술도 단일규격으로 통합해 공개한다.

3사는 이미 지난해 말에 결제시스템을 통합했고 앞으로 더 많은 컴포넌트를 단계별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게임 및 앱 개발자는 3사 앱마켓 별로 다른 규격의 콘텐츠를 개발해 상품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4월 통합개발자센터가 출범하면 개발자들은 한 곳의 개발자센터 규격에 맞춰 콘텐츠를 등록해도 3사의 앱스토어에서 동시에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다.

각마켓의 다운로드 및 거래 통계를 통합해 더 정확한 데이터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객응대 프로세스의 일원화, 3사 통합 콘텐츠 랭킹·상품후기·평점 정보 제공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3사 앱마켓 관계자는 “3사 간의 협업으로 수만 명의 개발자들은 4000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사용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하나의 통합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장악한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통신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바우에나 센터에서 애플워치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전세계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늘은 애플워치와 관련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앱을 소개한다.

애플페이/제작: Apple Inc /iOS
애플페이는 신용카드 등을 대신해서 결제가 가능한 애플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사용자들은 카드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각 카드에 대한 계정정보를 생성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애플 워치 사용자들은 단말기 버튼을 누르고 손목을 흔들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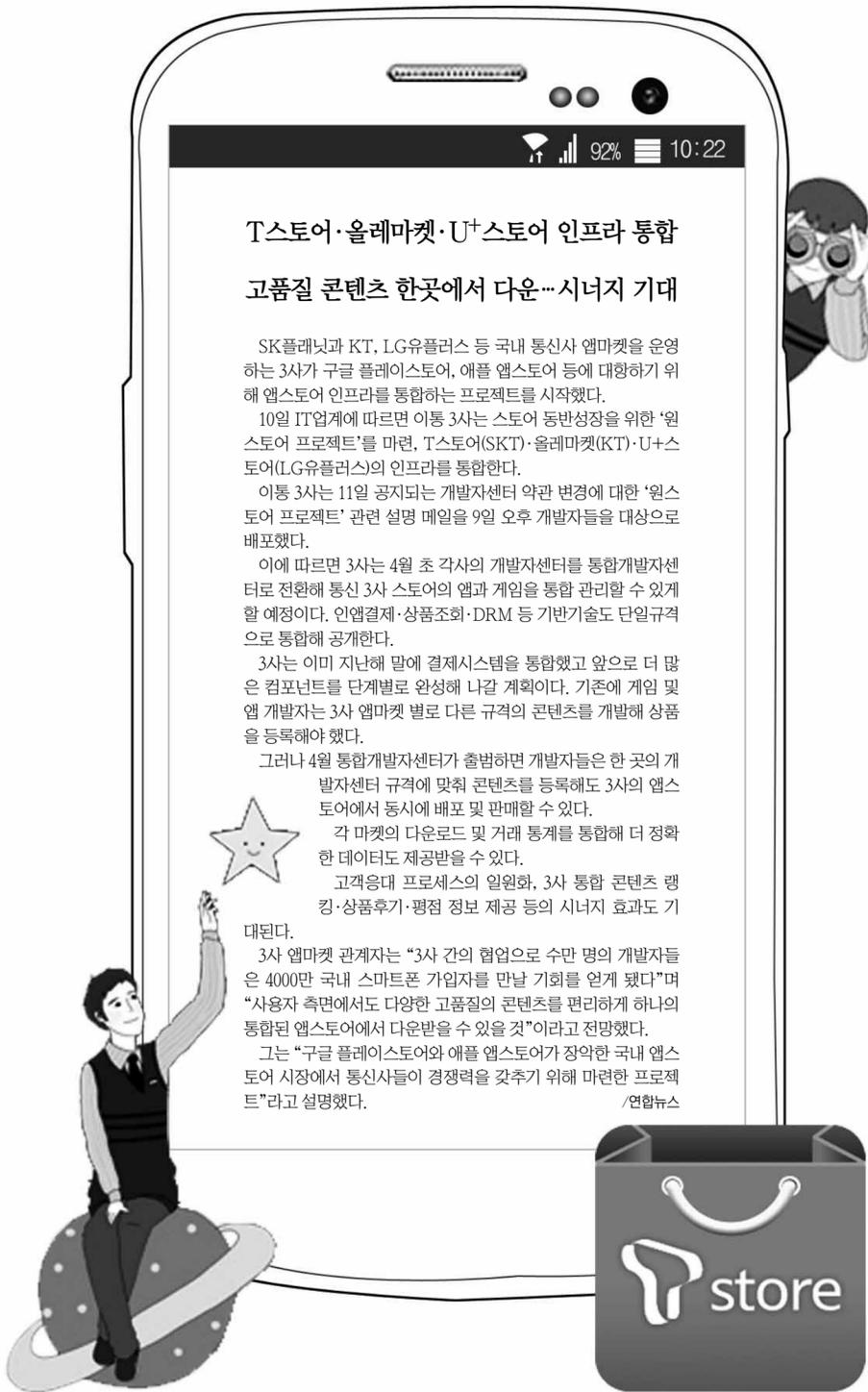
액티비티, 워크아웃/제작: Apple Inc /iOS
애플 워치의 킬러앱은 건강관리 앱이 될 전망이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은 액티비티와 워크아웃으로 다른 iOS 기기에는 없는 건강관리 앱이다. 액티비티는 내장된 센서로 상태를 측정해 매일 운동량을 분석해 주고, 워크아웃은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 등 구체적인 운동 시간과 거리를 분석해주는 앱이다.



BMW i/제작: Apple Inc /iOS
애플워치를 통해 자동차 컨트롤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 진행 중인 테슬라, 현대자동차의 컨트롤 앱은 물론 BMW I에도 자동차기술과의 연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적용된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애플워치를 통해서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스
ZO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os.com)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